

# 여성과

#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 소개

WECF는 젠더 정의와 건강 문제에 관한 활동을 하는 국제단체로 50개국 150여 개 단체의 연대 네트워크다. 주로 기후위기,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화학물질, 독성 폐기물, 안전한 물과 위생 이슈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 이 정책 보고서는 2014 UNEP(유엔환경계획)의 전문가 워크숍에서 도출된 여성과 화학물질 정책 제안을 토대로 2016년에 WECF가 작성하였다. 화학물질이 여성들의 삶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생물학적 영향을 검토해 시민사회와 국제단체들의 여성과 화학물질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였다.

## ▶ 전문 링크

[https://www.wecf.org/wp-content/uploads/2018/12/WomenAndChemicals\\_Publication|WD2016.pdf](https://www.wecf.org/wp-content/uploads/2018/12/WomenAndChemicals_Publication|WD2016.pdf)

이 보고서는 여성과 화학물질에 대하여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로 인한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여성과 화학물질 이슈가 현 시점에서 과학계, 국제 조직, 정부, 시민활동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성들이 주로 많이 겪는 유방암, 불임 등 특정 질환의 발병과 유해화학물질 노출을 연계한 수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여성건강, 특히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특정 화학물질이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늘고 있으나 현재 여성과 화학물질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 부족과 구체적인 정책, 입법,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왜 여성과 화학물질에 초점을 맞추는가?

여성은 남성과 다른 화학물질 민감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결정 요인을 경험한다. 많은 경우 여성과 남성은 다른 성 역할을 수행하므로 화학물질에도 다르게 노출된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여성건강을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비전염성 질환(NCD)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증된다. WHO(세계보건기구) 보고서는 2005년에만 1,800만 명의 여성이 비전염성 질환(NCD)으로 사망했다고 보고했으며 그 수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에 의한 특정 질병이 다음 세대에 나타날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등장하고 있다. 여성들이 임신 중에 특정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그들의 자녀와 손자에서 질병이 발병할 수 있다.

일상생활, 육아, 식품 및 기타 제품의 구매와 같은 활동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된다. 소비자로서의 여성들이 그들이 구입하는 제품에 들어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충분히 알게 되고 더 안전한 대안을 선택한다면,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건강을 위해 이 힘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 ▶ 성별 및 기타 사회적 결정 요인

취업과 관련해서도 남녀의 차이가 나타난다. 여성은 일자리와 임금, 복리후생, 근로조건, 의사결정권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 이는 많은 여성들을 비공식 일자리로 내몰았으며 이 중 다수는 쓰레기 처리장처럼 유해화학물질의 높은 노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즉, 차별, 빈곤, 교육, 공공 참여 및 자원 접근 등의 요인이 유해화학물질 노출과 연관된다.

## ▶빈곤

가난한 여성들은 비공식 고용이나 빈곤한 생활 조건 등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에 더 많이

노출된다. 빈곤한 여성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어 소규모 농사로 인해 오염된 물과 토양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 ▶ 교육

화학물질의 문제는 발병까지의 긴 잠재기간, 여러 세대에 걸친 효과, 태아 노출과 같은 요인뿐만 아니라 안전한 대안을 찾는 것 등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종류의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건강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알지 못한다. 제품의 성분 라벨 표시 및 전성분 공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는 더욱 악화된다.

## ▶ 공공 참여

유해화학물질 금지 또는 안전한 대안 모색 연구 예산 채택에 대한 실질적인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사 결정 기관, 즉 지역 차원, 지방 및 국가 차원의 의회, 정부 및 사법부, 그리고 대기업의 집행 위원회에서도 여성의 참여가 필요하다.

## ▶ 자원 접근성

전 세계의 많은 여성들은 건강 관리와 치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피하기 위해 여성들은 안전한 대체물과 화학물질이 아닌 대체물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종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 여성의 75퍼센트는 무급이거나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재산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불가능하다.

## ▶ 과학적 한계

많은 입법적 결정은 과학적 연구에 기초한다. 유해하거나 안전하다는 노출 사이의 선을 긋는 한계값은 남성의 평균 키와 몸무게에 기초한 기준에서 비롯된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다른 호르몬 체계 때문에 특정한 약물과 화학물질에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여성과 아동은 자신의 생물학적 조건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며 한계값 제한과 의약품 복용량이 그에 맞게 조절되어야 한다.

# 위협 받는 여성건강

여성의 전형적인 질병은 화학적 노출과 연관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은 단일 물질과 유방암, 불임, 비만 그리고 더 많은 질병들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 ▶ 유방암

화학물질과 여성의 문제와 관련된 첫 번째 질병은 아마도 유방암일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방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 유방암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PCDD/F, PCB, 다이옥신(DDT/DDE), 비스페놀A(BPA),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등과 같은 환경 중 화학물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 ▶ 불임

불임과 관련된 가장 흔한 세 가지 증상은 유산, 자간전증(임신중독증 중 하나), 자궁 내 성장 자체다. 많은 연구에서 DDT, BPA, 중금속, 살충제, 프탈레이트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과 불임 문제는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 여성들은 어디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가?

## ▶ 소비자로서의 여성

여성들은 단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쇼핑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일상용품을 사고, 옷을 빨고, 집을 청소한다. 이러한 모든 활동을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여성이 구매한 제품의 화학물질에 노출된다.

## ▶제품 내 화학물질

화학물질은 개인위생용품과 청소용품에서부터 옷, 장난감, 가구, 주방용품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직접 노출된다.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 많은 성분이 제품이나 라벨에 직접 공개되지 않는다.

---

### ☞ 섬유 내 화학물질

- 섬유는 보통 다양하고 복잡한 화학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옷은 피부에 밀착되고 지속적으로 닿는다.
- 옷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착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해로우며 그들 대부분은 여자들이다.
-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은 물과 토양이 오염되기 때문에 환경에도 해롭다.

### ☞ 화장품 내 화학물질

- 여성들이 매일 평균 9개의 개인위생제품을 사용하며, 100개 이상의 개별 화학물질에 노출된다. 어떤 성분들은 자극적이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내분비 장애나 암과 관련이 있다. 많은 국가에서 대부분의 화장품 성분이 라벨에 적혀 있어도 안전한 제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없다.
- 

## ▶가정에서의 여성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고정적인 성역할으로 인해 그들 중 많은 수가 전업주부들이거나, 그들의 자녀와 가정을 돌보고 있거나,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이다. 생활화학제품, 가구, 건축자재 등이 주요 실내노출원이다.

---

### ☞ 유독성 건축재료

-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석면은 값싼 건축 재료이며 지붕, 단열재 또는 시멘트에 널리 사용된다.
- 건축산업의 노동자뿐 아니라 석면을 사용한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 석면이 오염된 학교 건물에 있는 교사와 학생들 또한 노출된다.

## ▣ 실내 공기 오염

- 주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내 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요리용 연료로, 조리 중 발생하는 연기로부터 화학물질이 많이 함유된 작은 입자가 실내 공기에 노출되어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한다.

## ▣ 가정에서 일반적인 노출원 - 세제

- 가정용 세척 및 관리 제품에 함유된 많은 화학물질은 산업용 세척제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동일하다.
- 가정용 화학제품은 강한 자극성, 민감성 및 알레르기 물질, 향료, 인산염, 발암성 및 신경독성 용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일부는 피부 자극,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

## ▶ 일터에서의 여성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독성물질 노출로 인해 연간 약 651,000명의 여성이 사망한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데 이 규모는 매우 과소평가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여성은 중간 정도의 숙련도를 지닌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며(상점 직원 등) 서비스직, 농업, 비공식 직군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 직군은 급여를 못 받거나 덜 받고, 안전 조치가 부족하고, 정보와 훈련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닌다. 무급의 집안일과 육아에 유급 노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두 배의 부담을 감수한다. 여성, 특히 임신한 여성의 일터에서의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위해 별도의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지만 육아 휴직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감독하는 규제가 잘 시행되는 나라가 많지 않다.

## ▶ 농사 분야의 여성

농약 잔류물 오염은 농업 종사자, 이웃, 소비자 모두에 노출되나, 여성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여성은 살충제처럼 독성물질의 사용이 보편적인 농사 직군에 더 많이 종사한다. 또한 비공식적이고 취약한 일자리가 많아 사회적 보호와 혜택에 접근이 어렵고 과소대표 되는 경향이 있다. 여성 농부들은 살충제와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남성보다 부족하며, 노출로 인한 영향이 단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원인을 알기 어렵다. 여성 농부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하고, 더 강력한 보호 법안이 필요하다. 교육의 기회가 있어도

가족 부양의 책임을 더 중시하거나, 보호 장구가 불편하고 비싸고 구하기 어렵거나, 안전한 대안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살충제는 피부 흡수가 쉽고 체내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장기적, 단기적으로 여성의 건강에 위험하다. 특히 임신, 수유, 청소년기에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에 취약하여 더 위험하다.

## ▶ 산업 분야의 여성

취업 여성의 16%가 해당한다. 섬유산업은 화학물질 사용이 많고, 저임금, 환경 오염이 심하다. 염색, 프린트, 가공업, 소매업 전반에서 천식, 알레르기가 발생하고 발암물질과 자극 물질에 노출되고, 백혈병에 의한 사망, 유방암, 자연 유산을 겪을 수 있다. 플라스틱 산업의 경우 생산 전반에서 독성물질에 많이 노출된다.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성 물질과 내분비계 교란물질은 암, 특히 갱년기 이전 유방암과 재생산 건강 문제를 일으키며, 몸에 쌓이는 독성물질의 양(바디버튼)이 남성보다 훨씬 심각하다.

## ▶ 서비스 분야의 여성

취업 여성의 47%가 서비스직 종사하는데 이 일은 소위 ‘여성적’인 직업이라 간주된다. 의료 기기나 샴푸 등을 많이 사용하지만 성분표기가 없거나, 교육이 부족하여 정보가 거의 없다.

의료분야의 경우 소독제, 의약품, 청소용품, 라텍스 등과 같은 독성물질에 노출되어 천식, 급성 유산의 위험이 높다. 따라서 화학물질에 대한 더 높은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용사는 염색약, 탈색제, 파마약, 샴푸와 컨디셔너, 헤어 스프레이, 향수 등 수많은 독성 물질에 직접 노출되거나 실내 공기로 노출되는데, 호흡기, 피부 질병에 걸리거나 출산시 ‘기형’ 유발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독성 제품 생산, 성분 표시, 환기 시스템, 교육, 엄격한 법 등이 절실한 분야다.

## ▶ 비공식 분야의 여성

개발도상국의 경우 60% 이상의 여성이 비공식적으로 고용되어 있다.

폐기물을 수거하는 이들은 수백만명 이상일 것이나 수치를 알 수 없는데 주로 여성이나 어

린이가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

쓰레기의 독성, 감염성 물질 문제, 수거 시 물리적 위험이 상당하다. 쓰레기장과 폐기물 소각시의 독성 연기는 암, 선천성 ‘기형’, 면역체계, 재생산에 문제가 된다.

독성물질 노출은 질식, 호흡기 질병, 간이나 신장, 뇌질환, 심혈관계 질병, 암, 조기 사망 등 일으킨다. 종종 단독 부양자이면서 돈이 없고, 평생을 쓰레기장에서 살고 의료 지원을 받기 어려워 치료 가능한 질병도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다. 제로웨이스트 정책, 성분 표기, 독성물질의 점진적 제거, 사회적 보호망 구축 등 전반적 접근이 필요하다.

소규모 금광의 경우 미나마타 수은 중독에서 보듯, 여성과 어린이에 돌이킬 수 없는 건강 영향이 나타나며 다음 세대에 전달된다. 수은의 배출과 사용은 국제 조약이 없어 더 큰 문제가 된다.

## ▶ 어머니로서의 여성

화학물질에 민감한 아이의 첫 환경은 바로 여성이다. 소비자 인식과 환경 주제를 주목하는 엄마로서의 여성에 주목한다.

---

### ▣ 임신한 여성

알려진 바와 달리 태반은 유해화학물질을 다 방어하지는 못한다. 유해화학물질은 자궁, 모유, 뇌혈류막을 통과하여 아이의 신경 체계와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세대의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 산전에 축적된 화학물질은 30년이 지나도 산모와 태아에게 발견되지만 예방적 조치와 정보 전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 재고를 위한 캠페인, 제품 성분 표기 등이 필요하다.

### ▣ 모유의 오염

모유를 통해서도 생후에 유해화학물질이 전달되며, 모유는 음식과 실내 공기에 있는 살충제나 독성물질에 노출되어 오염된다. 수유는 엄마와 아이에게 장점도 많기 때문에 이를 신중하게 알리는 활동이 필요하다.

---

## ▶환경에서의 여성

여성은 공기, 물, 토양 오염에 남성과 동일하게 노출되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공기 오염에 더 취약하고, 여성 노인은 매연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다. 규제 전의 살충제, 잔류성 유기화합물, 사고, 산업적이고 군사적 활동, 광산 등에서 심각하게 오염된 유해물질은 지하수와 물, 공기를 오염시켜 그 주변의 가축, 작물, 사람들을 독성물질에 노출시켜 각종 질병을 야기한다. 비용 때문에 이를 치우는 것보다 그냥 보관하는 경우가 더 많다. 아직은 자료가 부족하지만, 유방암과 유해물질 오염 지역 거주의 상관성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 오염세와 같이 국제적 비용 부과가 필요하고, 유해물질을 제거를 위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 변화의 매개로서의 여성

여전히 100개 이상 국가에서 여성은 규범적, 법적으로 차별받고 이런 사회적 역할 때문에 환경 정책과 실천에 다른 필요와 우선 순위를 가진다. 이에 많은 여성들이 환경 운동가와 과학자로서 활동하고 (레이첼 카슨, 반다나 시바, 왕가리 마타리 등) 여성이 환경 문제에 더 많이 참여하고 관심이 있다는 연구가 조금 있으나 이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여성은 아이를 계획하고 임신했을 때부터 소비와 변화에 참여한다. 여성은 건강과 육아 전문가들에게 독성물질과 건강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관련 단체들이 가이드를 내놓는다. 그러나 정책 결정과 주류 언론에서 여성은 덜 대표되며, 이는 변화되어야 한다. 여성은 다른 부서보다 환경부 장관에 많이 임명되고,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독성 오염 문제, 기후변화 등에 정치적으로 관여한다.

변화의 매개로서의 여성에게 정책 결정권자, 소비자, 사회 운동가, 연구자로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 여성들이 주로 노출되는 독성물질은?

## ▶ 유해화학물질 보고서 현황

2013년에 나온 세계 화학물질 전망(Global Chemical Outlook)에는 정부, 시민단체, 무역협회, 산업계 등의 리스트를 잘 통합했으나 성별간 요구나 수용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화장품의 성분에 대한 리스트만이 여성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 이외 미국 굿가이드(GoodGuide), 북유럽 노르딕스완(Nordic Swan), 유럽연합 에코라벨(EU Ecolabel), 독일블루엔젤(Blue Angel) 등의 인증라벨과 휴대폰 앱 등이 소비자의 화학물질 정보를 담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가 급성 독성, 발암물질, 돌연변이, 생식 독성 등 위험도가 높고 돌이킬 수 없는 건강 영향을 주는 살충제 기준을 개발하고, Pesticide Action Network라는 시민단체가 이를 발전시켜 426개의 성분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남간 차이는 제시하지 않았다.

## ▶ 떠오르는 화학물질: 환경호르몬(EDCs), 고독성 살충제, 잔류성 유기화합물(POPs), 납과 수은 등의 중금속

아래는 뜨겁게 떠오르는 화학물질들인데, 특히 여성과 태아에게 위험하다.

### ☞ 내분비계 교란 물질 (EDCs) (환경 호르몬)

제3차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31개국이 정책 이슈임에 동의했고 EU(유럽연합)는 규제 예정이다. 환경호르몬은 매우 작은 양으로도 호르몬의 분비, 유전자의 작용, 발달, 특정 호르몬의 생산과 분비, 정상 호르몬의 전달에 이상을 일으켜, 유방암, 갑상선암, 불임, 비만, 당뇨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 ☞ 고독성 살충제 (HHPs)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뿐 아니라 근방에 사는 여성들도 오염된 음식과 호흡으로 살충제의

영향을 받는다. 살충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 더 큰 문제다. 사망 가능한 급성 중독, 자궁암, 유방암, 불임, 갱년기 지연 등을 초래한다. 위험은 명확하지만 인식 증대를 위한 활동이 부족하며, 안전한 대안 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엄격한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

### ▣ 잔류성 유기화합물(POPs)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잔류성 유기화합물을 금지했으나 여전히 인체에서 발견되고 있다. 지방에 축적되어 여성에게 더 위험하며, 자궁을 통해 태아에게,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된다.

### ▣ 중금속 - 납과 수은

여성은 공기, 물, 음식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수은에 노출된다. 신경 체계, 심혈관계, 신장에 독성이 있으며, 뇌혈류막과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임산부에게 가급적 생선을 먹지 않도록 권유한다.

납의 건강 영향은 평생 지속되고 돌이킬 수 없어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매우 해롭다. 임산부는 납을 태아에 전달할 수 있고, 뼈에 축적된 납은 대대로 유전된다.

---

# 이니셔티브

## ▶국제 기구

유엔개발계획(UNDP)을 제외하고 여성과 화학물질, 여성과 물, 여성과 기후변화처럼 주제별 프로그램은 없다. 국제적 화학 정책 활동이 필요하다.

## ▶유엔개발계획(UNDP)

여성과 화학물질 출판물을 나온 유일한 유엔 기구다. 국가 개발 전략에서 SMC(Sound management of chemicals,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주제로 만드는 6단계를 제공하여 개발, 젠더, 화학물질 관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사례와 노출시의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 ▶ BRS(바젤, 로테르담, 스톡홀름) 협약 사무국

BRS 협약은 성평등을 포괄한 젠더 행동계획(GAP)을 만들어 냈다.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보편적 목적을 포함시키고, 젠더, 빈곤, 독성 화학물질, 쓰레기 간의 연관 관계를 더욱 인식시키는 목표가 있다. 또 여성을 중심에 두는 중단기적 뼈대를 수립하는 활동을 목표로 한다.

## ▶ SAICM(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젠더 관련 접근은 없으나 전문가 워크숍에서 향후 여성과 화학물질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루도록 제안한 바 있다.

## ▶ 세계보건기구(WHO)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의 건강 관련 상황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젠더, 여성, 그리고 건강 네트워크는 모성의 건강, 재생산권에 대해 젠더 주류화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 유엔환경계획(UNEP)

화학물질과 독성 폐기물에 대해 유엔환경계획이 유엔을 주도하고 있으며, 여성과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국제적 평가, 여성 리더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각종 협약에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향상 등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점을 이룬다. 여성과 화학물질에 대한 활동을 포함하는 정책 제안을 제공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촉진한다.

## ▶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는 노동 분야에서 여성의 평등권 관련한 업무를 해왔고, 직장에서의 유해 물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여성 별도의 자료는 없다. 국제노동기구는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택해왔다.

- 
- ▣ 평등 관련 노동 규약의 비준과 적용
  - ▣ 정책, 입법, 프로그램, 기관의 성평등적 변화에 대한 자문과 가이드
  - ▣ 성평등한 노동에 대한 연구 전파
  - ▣ 기술적 협조 프로그램 제공
  - ▣ 성평등을 방법론으로 제공하는 훈련과 역량 개발, 지식 개발 활동을 지원
- 

## ▶ 시민단체

시민단체들은 여성과 화학물질에 대한 모든 분야와 지역적 단계를 아우르며, 유해물질과 사고에 의한 피해자를 보살피고, 회사를 감시한다. 현재 약 1,000여개의 시민단체가 유해 물질과 살충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 ▶ 사기업

주로 임원진과 과학자에 국한되고, 여성이 직장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산업적 데이터나 이를 밝히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다. 그러나 SAICM indicator No. 7 (화학물질과 연관된 위험성 자료를 취합하고 취약 계층간 소통을 한다)이 실패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 자료 취합과 그들의 사회 경제적 조건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예상된다.

## ▶ 정부

정부의 활동은 넓은 범위와 다양한 관점이 들어가고, 이는 포괄적인 평가를 어렵게 한다. 정부는 모성 휴가, 임신시 환경호르몬 노출 줄이기, 비스페놀A를 음식에 닿는 제품에서 금지하기 등을 시행한다. SAICM의 보고서에서 정부는 고위험군의 화학물질 관련 위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소통 전략을 개발하도록 요구 받았다. 각국에서는 이를 수정하고 활동 방향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

# 결론 & 제언

‘화학물질과 여성’은 과학계에서 떠오르는 이슈로, 대부분의 연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완료되었으며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성 및 화학물질과 관련된 특정 측면에 대한 실질적인 개요를 제공하는 포괄적 연구가 부족하다. 성별과 다른 과학적 논제에 비해 여성 및 화학물질 문제는 아직 잘 연구되지 않았다. 화학 및 생물학 분야에서 1) 화학물질이 여성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 2) 여성이 특정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사회 경제적 차원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모든 영역에서 더 많은 정보와 특히 성별로 분리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

주최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콘텐츠 생산 | 2021 젠더 유해물질 모임 참가자들  
편집 및 정리 | 고이지선(젠더 유해물질 모임 참가자),  
고금숙, 배보람,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이 보고서는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 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